



[금융]
차기 KB국민은행장
이민주 확정
허인 現행장 연임 유력
05



Life

[라이프]
시식 사라진 마트
랜선·집콕 시식회
자리 잡는다
니



희망·상생·창의로 가꾼 '사회공헌', 상상 속 세상 만들어요



KT&G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포기하기 쉬운 상상들은 현실로 이뤄주는 기업이 있다. KT&G는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축, 건강 및 보건 위협 등과 같은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3가지 핵심가치 기반 사회적 책임 실천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통합리포트만 공개하는 것과 달리 KT&G는 지난 2018년부터 별도의 사회공헌 보고서를 발간해 차별화하고 소통 채널을 확대해 왔다.

KT&G는 '희망', '상생', '창의'의 3가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보고서는 ▲ '희망'으로 뿌린 씨앗(복지재단·장학재단) ▲ '상생'으로 맺어진 열매(청년창업·상상펀드·사회책임·동반성장) ▲ '창의'로 커가는 나무(상상마당·상상유니브) 3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아울러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문화공헌 플랫폼 상상마당, 글로벌 CSR 등 중점 활동들을 특별 페이지에 담아 그간의 성과를 깊이 있게 다뤘다.

앞서, KT&G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KT&G는 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활동을 보고서에 소개했다.

KT&G는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적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통해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대응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해 성금·물품 등 물리적 지원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심리적 지원 활동 등을 단계별로 진행 중이다.

◆당신의 상상을 이뤄주는 기업

KT&G는 상상마당을 통해 신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대중들에게 폭넓은 문화 경험을 제공해왔다. 2007년 '상상마당 흥대'를 시작으로 논산, 춘천, 대치에 잇따라 상상마당을 선보였으며, 현재 연간 방문객 180만명, 매년 3000여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문화메카로 성장했다.

지난 9월에는 문화예술과 창업생태계 지원을 강화하고, 대중문화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부산 서면에 복합문화공간 'KT&G 상상마당 부산'을 개관했다.

이번 개관은 지난 2017년 5월 부산시청과 'KT&G 상상마당'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약 3년 만의 결실이다. KT&G는 지역 청년들의 문화, 예술, 창



KT&G는 14년째 잎담배 수확 봉사를 하며 농민과 꾸준한 상생 실천하고있다.

/KT&G



KT&G가 지난달 2019년 사회공헌 활동의 성과를 담은 '2019 KT&G S-REPORT'를 발간했다.



상상마당 부산 외관.

/KT&G

희망·상생·창의의 핵심가치 기반 사회적 책임 실천·청년 지원 앞장

상상마당 조성해 예술가 활동 지원 공연장·갤러리 등 복합문화공간 제공

국내 잎담배 농가에 복지증진 지원 경작인 건강검진·농가 자녀 장학금 일손 부족한 농가 찾아 수확 봉사도

업, 취미의 허브 역할을 할 '상상마당 부산'을 조성하고, 부산시는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상상마당 부산'은 KT&G에서 다섯 번째로 선보이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지상 13층, 지하 5층에 연면적 약 20,000㎡로, 현재 운영 중인 상상마당 중 최대규모이다. 1층부터 5층까지는 'PLAY'를 주제로 하는 카페, 디자인매장, 공연장, 갤러리 등이 배치되어 있다. 5층 일부와 6층에는 'CO-WORK'를 콘셉트로 하는 1인 미디어 활동가들을 위한 창작공간과 청년 창업지원 공간이 마련됐다. 7층부터 13층까지는 'REFRESH' 공간으로 숙박시설, CGV 영화관('21년 4월 입점 예정), 루프탑 등이 자리해 문화와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다.

◆농민과 꾸준한 상생 실천

KT&G는 국내 잎담배 농가의 복지증진에 힘쓰기 위해 경제적 지원 사업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잎담배 경작인 1000명의 건강검진과 농가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4억원의 복지증진 비용을 전달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금액은 24억5400만원에 달하며 6900여명의 경작인들이 수혜를 받았다. 또한, 국내에서 영업중인 담배업체 중 국산 잎담배를 구매하는 기업은 KT&G가 유일하다.

지난 7월에는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잎담배 농가들을 돕기 위해 경상북도 문경 지역에서 수확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잎담배 농사는 한여름철인 7~8월에 수확이 집중되며, 기계화가 어렵고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노동 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국내 농가들은 코로나19 위기와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G는 이러한 농가들의 고충을 덜어 주고자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봉사활동을 실시해 농민들과의 상생을 지속해오고 있다. 올해는 30여명의 임직원들이 문경시가 은읍의 잎담배 농가를 방문해 3000㎡의 농지에서 약 4000kg의 잎담배 수확 봉사활동을 펼쳤다.

KT&G는 잎담배 수확 작업뿐만 아니라 봄철 이식 작업시에도 일손 돕기에 나서며 연중 농민들과의 상생을 이뤄 나가고 있다.

김경동 KT&G 사회공헌실장은 "KT&G는 지속가능경영 선도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 왔으며 이러한 내용을 사회공헌 보고서 'KT&G S-REPORT'에 충실히 반영해왔다"며 "앞으로도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